

인도네시아의 고인돌과 거석문화의 연속성

Agus Aris Munandar 박사

인도네시아 대학교 인류학부 고고학과

인도네시아의 몇몇 소수 부족들은 지금까지도 예를 들어 고인돌과 같은 거석기념물과 단순한 상(象)을 만드는 행위들이 발견되고 있다.

사실 그 행위들은 고대에, 선사시대의 인도네시아 조상에 의해 행하여진 전통관습이 전해져 오는 것이다.

민족지학자와 비슷한 연구한 자들에 의하면 몇몇 소수 부족들은 아직도 인도네시아 몇몇 섬에 살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그 소수 부족들은 인도, 중국, 독일 같은 낯선 문화들로부터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았다. 그들은 단순한 상(象)과 거석기념물들을 만드는 행위들을 조상을 숭배하는 의식을 받드는 것으로 알고 있다. 조상들을 숭배하는 의식을 하는 이유는 선사시대 사회 속에 마을이나 집단의 최고령자를 존중하기 위한 과정인 것이다.

그 시대에 추종자들에게 제일 존중을 받는 사람은 마을이나 집단의 최고령자였다. 왜냐하면 그는 싸움, 사냥, 많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논과 밭, 많은 동물, 많은 부인들과 아이들 등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 어떤 이가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면, 그는 마을이나 집단의 족장으로 선택될 것이다.(제1인자)

족장은 그 일원들을 관리하면서 그 집단에서 더 좋은 집단으로 반드시 만들어야 했다. 잔치에서 족장은 무료로 마을사람들에게 마실 것과 먹을 것을 많이 주어야 했다. 잔치는 하루나 일주일이상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했고, 그것은 족장의 재산에 달려 있었다. 왜냐하면 족장이 많은 잔치들을 책임짐으로 그의 힘과 권력을 더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족장이 죽은 후에, 족장의 기억을 가진 사람들은 나무나 돌에 형상을 만들었다.

선돌 형상은 죽은 이와 비슷한 고정된 형상이거나 새로 시작하기 위한 선돌 형상의 개념이다.

다리가 없이 단순한 형태나 고정된 형상으로 만들었다.

다른 특징들은 다음과 같다.

- 얇은 선으로 된 입술과 귀, 코, 눈, 얼굴들로 상세히 그려져 있다.
- 상(象)은 성기를 상징하였다.
- 상(象)은 조상의 상징과 같은 종교적인 의식에 이용되었다.
- 주로 언덕 꼭대기, 고원, 산의 경사면에서 발견된다.

선돌과 고인돌을 함께 구멍 뚫어진 돌에 가까운 곳에 세운다.

(인도네시아 고인돌은 지탱하기 위한 바닥의 몇몇 작은 선돌과 함께 축조된 평평한 돌이다.)

사실 인도네시아 고인돌은 많은 선사시대 유적, Sumatra, Java, Nusa Tenggara (남동부 섬)에서 발견된다.

고인돌 형태는 다양하며, 단순하고 작은 형태, 인상적인 크기를 가졌다.

고인돌은 간단한 정의로 “다리 역할을 하는 선돌과 함께 완전한 탁자식 형태”이다.(Soekmono 1973: 72)

부연 설명을 하자면, 평평한 자연적인 돌과 같은 고인돌은 세 개 또는 더 많은 똑바로 선 돌(선돌)이 받쳐준다.

인도네시아의 몇몇 선사시대 유적에서 발견될 수 있는 작은 고인돌은 탁자 평면과 같은 평평한 돌로 너무 넓지 않고, 짧은 선돌이 지탱하고 있다.

작은 고인돌을 축조하는 과정은 작은 제단을 세우는 과정과 비슷하며 주로 주요한 선돌 가까이에서 만들어진다.

조상숭배 의식을 행하는 과정은 주요한 선돌 가까이에 있는 평평한 고인돌 위에 제사물들을 놓고 나면 무당이 선돌에 머무는 이의 초현상적인 힘을 부르는 이상한 문장들을 읽는다. 그 때 사람들과 초자연적인 것 사이에 무당이 매개자가 되어 대화를 만들어 간다.

다른 것들 사이에 제단으로 사용되는 고인돌은 Java 섬 서쪽 Kuningan 지역의 Cipari 유적과 또한 Banten 지역의 Kosala에서 볼 수 있다.

또한 Java 섬 서쪽, Bogor 가까이에 있는 Sindangbarang 유적의 고인돌에서 볼 수 있다. 재미있는 점은 그런 종류의 고인돌은 항상 피라미드 기념물의 계단과 같은 층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고인돌 형태는 자연적인 돌이고, 계란 모양, 2m 길이, 30~100cm 두께로 받침돌과 같은 작은 돌에 의해 받쳐진다.(20cm 높이)

Sindangbarang 지역의 고인돌은 단단한 대지에 만들어졌고, 피라미드 기념물의 계단과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

동쪽 Java 섬의 Besuki 지역의 고인돌은 마을 사람들에게 의해 pandhusa라 불린다. pandhusa 아래 평평한 돌은 사실 매장용 돌인 것이다.

매장 바닥에서는 인간의 뼈, 목걸이, 깨진 테라코타들, 금속으로 만들어진 것들이 발견된다.

pandhusa 중 하나는 AD 9세기인 중국 토기가 들어 있었다. 전문가는 pandhusas가 Java 섬 힌두불교 시대에서부터 시작된 역사 시기에 만들어졌다고 결론지었다.(Soekmono 1973: 75)

또한 매장기념물 같은 고인돌은 남부 Sumatra Pasemah 지역에서 만들어졌고, 전문가는 ‘무덤방’이라고 이름지었고, Tinggi Hari 지역에서 볼 수 있다.

무덤방은 고인돌과 비슷하지만, 긴 쪽 중 하나는 언덕의 낮은 부분에 기대어 만들어야 하고 2개의 짧은 쪽 모두는 똑바로 선 돌의 평평한 곳에 기대어진다. 다른 긴 쪽은 남겨진 입구 공간과 함께 평평한 돌로 덮혀진다.

Tinggi Hari 고인돌의 구조는 돌 구조물로 지어진 집처럼 생겼고, 그런 조건

에 의한 고인돌은 무덤방이라 이름 지었다.

마을 사람들에게 의해 무덤방에서 사람 뼈가 발견되었다고 전해졌다. 그래서 그런 무덤방의 기능은 Besuki 유적의 pandhusa 와 같다.

Pasemah 지역과 같은 고인돌은 Gunung Kaya 유적과 같이 평평한 지역에서 발견될 수 있다. 꼭대기에 큰 돌로 이루어진 구조물로 바닥에 작은 선돌들이 받쳐주고 있다.(Kusumawati & Haris Sukendar 1999/2000: 187, Foto 131) 북쪽 Sumatra도(道)를 포함한 서부 Sumatra Nias 섬에서 더 많은 고인돌이 여전히 만들어지고 있다.

고인돌은 돌 하나로 만들어진 구조물이다. 사각형이나 원형인 평평한 탁자처럼 생긴 돌과, 다리(중앙에 다리 하나만 있고, 4개의 다리가 평면의 각 코너마다 있다.)와 탁자식 모양으로 베어 낸 한 조각의 돌이 평평한 부분으로 연결되어 있다. 왜냐하면 구조물은 한 조각의 돌이기 때문이다.

Niogadi의 마을사람들은 남자 조상을 위해 축조되었던 돌기둥과 여자 조상을 위한 제단을 고인돌이라 불렀다.

남동부 제도 Sumba 섬의 사람들은 현재까지도 고인돌과 선돌을 축조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 고인돌의 평평한 돌의 부분이 더 만들어지고, 모양은 평평한 상자모양 돌같이 생겼으며, 지지대 기능을 하는 기둥인 선돌은 막대기 돌과 같이 만들어졌다. 그것은 입방체 모양으로 지지대인 막대기 돌의 높이는 1.5~2.5m이거나 더 높았다.

Sumba 섬의 고인돌의 형태는 인도네시아의 몇몇 소수 부족의 전통적인 곡식창고 건축양식과 비슷하다.

Bali 섬과 Sasak 부족의 곡식창고 건축양식은 상위 부분을 만드는 단을 각 코너마다의 4개 기둥이 받쳐 주고, 하위 부분은 사람들이 앉아서 이야기도 하는 장소인 두 번째 단을 가지고 있다. 상위 부분은 윗부분이 계단모양으로 꺾인 지붕 모양인 쌀 저장물이 들어 있는 무덤방이다. 사람들은 맘대로 움직일 수 있는 대나무 계단을 곡식창고 상위부분, 무덤방에 쌀을 넣었다. 단으로 지어진 곡식창고 건축양식은 Poso 사회, 중앙 Sulawesi, 남부 Sulawesi 지역인 Toraja 마을에서도 알려져 있다.

Minangkabau 지역의 곡식창고의 소수 부족은 모두 같은 건축양식이나 지붕 모양은 독특하다. 왜냐하면 atap begonjong로 이름 지어진 버팔로의 뿔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 사이의 차이점은 자세한 건축양식, 특별히 지붕 모양, 장식과 크기가 있다.

농업사회의 주된 음식은 쌀이며, 쌀의 경작은 매우 중요하다. 쌀은 의식을 위하고 제물이 되고 스스로 신화가 되었다.

Javanese과 Sundanese의 소수 부족은 쌀의 신화는 인도 신화에 의해 변화되었다.

쌀의 여신 Śrī는 번영의 신 Wisnu의 아내이다. Śrī 여신의 상징인 쌀의 장소는 보통 룸봉(곡식창고)이라 이름 지어진 단의 건축물이다. 그러나 단은 그리 높지 않다.

Sasak (Lombok) 지역의 Bali와 Toraja 지역에 사는 소수 부족들은 인도의 신화 영향을 받았고, 고인돌과 비슷한 높은 단을 가진 곡식창고 건축물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실 고인돌과 곡식창고에 발견된 비슷한 기능은 제단과 초현상적인 힘과 연합하는 것이다. 흥미로운 사례는 Kalimantan의 지금도 존재하는 Daya 소수 부족에서 sandung이라 불리우는 단순한 건축구조물이다.

sandung은 썩는 물질(나무, 대나무, 엮은 나뭇잎들)들로 만들어진 단으로 구조물의 꼭대기에 무덤방 상위에 죽은 시체의 뼈를 놓는 기능을 한다.

아마도 sandung은 다른 형태의 고인돌일 것이다. sandung은 고인돌과 같은 제사행위를 지낸 건축구조물로 믿는 것으로 결론짓는다.

마지막으로 만약 고인돌이 거석문화 시기에 돌 유적에 제사행위를 한 것이라면, sandung과 lumbung (곡식창고) 또한 거석문화 시기 후에 오는 시기에 거석문화 관습으로 제사를 지낸 유적인 것이다.

고인돌과 곡식창고 사이의 제사를 지낸 개념의 유사성에 관한 몇몇의 토론 주제들은 다음과 같다.

- 인도네시아의 고인돌은 쌀을 경작했던 소수 부족에서 발견할 수 있다.
- 고인돌은 제사행위를 한 거석물이다. 왜냐하면 조상숭배 의식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 쌀은 중요한 농작물로, 몇몇 소수 부족에서 중요한 음식이며, 제사를 지낸 농작물이고, 초자연적인 힘에서 왔다고 믿고 있었다.(hyang, dewata, nenek moyang(조상), 토렘, 신들)
- 쌀은 반드시 낮은 지역에서 바로 넣어서는 안되며, 땅 위에 넣어야 한다. 그러나 단 구조물에는 전통적인 곡식창고에 넣어야 한다.
- 곡식창고는 썩는 물질이나 나무가 있는 고인돌이다.
- 고인돌과 곡식창고는 초자연적인 이를 숭배하는 제단적인 기능을 같이 가지고 있다.

사실 거석문화의 종교 체계의 기본은 신성한 은폐된 세계를 믿는 것이다.

Fritz A. Wagner는 거석문화 전통의 기본은 단지 거대한 거석기념물을 축조하는 것이 아니라 조상에게 숭배하는 것이라고 공언했다.

작은 거석기념물이 조상숭배 행위와 연합되는 거라면 그것 또한 거석문화 전통인 것이다.(Wagner 1995: 12)

계속되는 전통인 거석문화는 지금까지도 인도네시아의 많은 소수 부족들이 향상시키고 있으나 전통은 현대 세계에서 새로운 영향을 주는 문화의 변화를 따르게 마련인 것이다.